

인터뷰

대전충남인쇄조합 구자빈 이사장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 류정열 조합장



류정열 조합장



구자빈 이사장

‘대덕특구 인쇄산단’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할 터

평당 120만원 예상, 지리적 접근성 뛰어나

최근 수년 동안 대전, 충남지역 인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전충남 인쇄출판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시화됐다. 대전충남인쇄산업단지추진조합(조합장 류정열)은 대전시가 최근 유성구 둔곡지구에 인쇄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에 조성 면적 26만9553m²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참여가 불투명했던 LH도 지난해 연말에 둔곡지구 사업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해 인쇄출판산업단지의 조성 및 사업추진에 힘을 더했다고 전했다.

총 103만m²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둔곡지구에 인쇄출판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동안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에 밀집해 있던 인쇄·출판업체들이 옮겨가 대전지역 인쇄산업의 집적화 및 첨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쇄출판산업단지가 들어설 둔곡 지구는 대전 대덕특구에서 유성 봉산지구를 거쳐 세종신도시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입지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구자빈 이사장과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 류정열 조합장으로부터 대덕특구 인쇄출판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인쇄산단)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현황, 향후 개발 계획 및 그의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최근 수년간 대전·충남지역 인쇄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대덕특구 인쇄산단’의 조성사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감회가 있을 듯 한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빈 이사장 : 그동안 만 3년여에 걸쳐 사업이 지지부진해 속이 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걸음 한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대덕특구 인쇄산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긴 하지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쇄산단의 정식

명칭은 '대덕특구 인쇄출판산업단지'이며 낙후되었던 대전 삼성동에 위치한 인쇄업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정열 조합장 :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집중해서 '대덕특구 인쇄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쇄산단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품 인쇄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대덕특구 인쇄산단의 추진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요?

구자빈 이사장 : 잘 아시다시피 행정복합도시로 추진되던 세종시의 수정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 주요 개발계획의 틀이 바뀌게 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지역에 대한 실사계획이 중단되는 등 인쇄산단 조성 사업도 그 동력을 잃고 표류하면서 수정안의 귀결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세종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이전이 이뤄지게 되어 '대덕특구 인쇄산단'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류정열 조합장 :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안대로 추진되게 된 것은 대전충남지역 인쇄업계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사업부지 문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부지 규모나 분양 예정가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까지 1차로 마감한 대전충남지역 인쇄업체들의 '대덕특구 인쇄산단' 입주신청이 16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어 성공적으로 분양이 마무리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7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전망인데 이는 현재 인쇄거리에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인쇄산단의 총 면적은 26만㎡에 달해 국내 인쇄산단으로서는 최대 면적을 갖게 됩니다. 또한 3.3㎡당 분양가도 120만원으로 예상되어 비용면에서도 입주 희망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리

라 생각합니다.

대덕특구 인쇄출판산업단지의 특징과 차별성은 어떤 것입니까?

류정열 조합장 : '대덕특구 인쇄산단'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많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주요 배후도시로서 내년부터 이전하게 될 많은 정부기관의 이전에 따른 막대한 인쇄물량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비롯,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한 산, 학, 연 디자인센터의 육성을 통한 첨단 디자인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복권과 전복권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적 이점이 있습니다. 인쇄, 출판물의 유통과 물류에 있어서도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특구 인쇄산단'이 조성되면 오·폐수의 공동관리,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 능률적인 작업 공간 확보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산업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덕특구 인쇄산단'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로서 추진되는 것이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와 시간적인 소요시간 및 각종 제도, 법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면 산업단지 가운데 최상위에 속한 국가산업단지, 그것도 특구로서의 지위는 입주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무적인 면에서도 '대덕특구 인쇄산단'은 단지 내부에서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다 이뤄지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빈 이사장 : '대덕특구 인쇄산단'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설비 신설 및 인쇄산업의 집산화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쇄 관련업종의 집산화는 원가 및 물류비의 절감을 가져오고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특구 인쇄출판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앞으로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빈 이사장 : 무엇보다도 그동안 750여 인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시 동구의 삼성동, 정동, 중동 일원이 대전역



류정열 조합장

역세권 재정비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신규 기계 설비 투자 및 확충이 제한되고 다른 투자도 사실상 어렵던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이는 대전의 원도심 재정비와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종시 건설 및 중앙부처의 이전으로 급증할 인쇄물량을 소화함으로써 지역 인쇄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3대 인쇄시장이라는 서울, 대전, 대구의 현실을 보더라도 인쇄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열악했었는데 ‘대덕특구 인쇄산단’이 정착되고 가동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류정열 조합장 : 무엇보다 700만의 인구가 있는 큰 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700만의 시장은 세 번째 큰 것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서울을 제외하면 제일 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덕특구 인쇄산단’은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더라도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인쇄산단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를 5분 이내, 정부대전청사 15분 이내, 대전시청 17분 이내

대덕특구 인쇄산단은
건축비의 10%를 투입해 디자인 개념을
갖춘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
니다. 또한 디자인 연구센터도 함께
입주하도록 유도하여 실무적인 면과
외형적인 면에서 명품이 되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로 접근할 수 있으며 경부, 호남, 서해안고속도로를 1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 전국적인 영업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에도 26분 이내로 갈 수 있어 앞으로 준비를 잘 갖추었다면 해외 수출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인쇄산단’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10%를 투입해 디자인 개념을 갖춘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에서도 차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인쇄와 어우러진 디자인 연구센터도 함께 입주하도록 유도하여 실무적인 면과 외형적인 면에서 명실 공히 명품이 되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인쇄거리에 위치해 있는 인쇄사들과 관련업체들이 어느 정도 ‘대덕특구 인쇄산단’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또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대전시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시와의 협조 관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빈 이사장 : 일부 업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산단으로의 입주에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산단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의 인쇄거리는 대전시의 입장에서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인데 저희는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에 적용시킬 경우
인쇄와 동영상의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이 인쇄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인쇄인들이 QR코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이 시장을 다른 업계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빈 이사장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통해 이들을 포용하려 합니다. 특히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인쇄산단추진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많은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류정열 조합장님 덕분에 시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류정열 조합장 : 현재 대전시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수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수시로 대전시 관계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구자빈 이사장님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덕특구 인쇄산단에는 대전 충남지역 이외의 인쇄업체의 입주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열 조합장 :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차별 없이 '대덕특구 인쇄산단'에 입주하기를 원하시는 업체들을 받아 들일 것이며 최종적인 마감은 오는 3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부권에 국한 되지 않고 국내 최고 인쇄단지들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명품 인쇄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지역에 구분 없이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대덕특구 인쇄산단 조성이라는 최대의 이슈에 가려 있지만 다른 사업과 이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둘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구자빈 이사장 : 올해는 조합 차원에서의 스마트 QR코드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인쇄를 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QR코드를 인쇄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인쇄와 동영상이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이 인쇄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다 많은 인쇄인 여러분들이 QR코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만 이 시장을 다른 업계에 빼앗기지 않고 인쇄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정열 조합장 : 당연히 '대덕특구 인쇄산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에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루 빨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덕특구 인쇄산단'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터전이 될 사업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대덕특구 인쇄산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